

월요광장

호남, 멀리 보고 도약하자

김영웅
전남대 교수·경제학

박준영 전남 지사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준 것은 '가볍고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 편에서는 '박 지사의 발언에 대한 성난 호남 민심의 표현'을 대변하듯 한 전남도의회 의원이 도정 보고를 하던 박 지사에게 물을 끼얹었고, 이에 대해 다른 한 편에서는 '내화와 타협을 포기한 민주주의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지사는 "호남인이 고립돼 있어 치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감정적·충동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자신에게 물세례를 퍼부은 의원의 선처를 당부했다. 도의회가 물세례를 한 의원의 제명을 부결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

자유 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특정 후보에게 표가 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를 탓할 이유는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은 투표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점에서 박 지사의 발언도 시비할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박 지사의 발언이 분단이 아니라 호남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행위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찰의 출발은 박 지사가 받은 질문인 "호남이 고립돼 있다"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한화갑 전 의원이 대선 전에 한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호남은 밖을 내다보고 밖에서 호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에도 담겨 있다.

호남의 지역의식 또는 지역감정은 꽤 긴 시간을 두고 형성됐다. 필자는 1980년대 말 지역감정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호남의 지역감정에 대해 3시기로 나눠 검토한 적이 있다.

지역감정 형성기(1962~1971년)는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와 함께 태동한 토착 기업과의 공업건설 의지가 좌절되고 농업개발 육구와 하부구조 건설 요망 등이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좌절된 시기다. 현 기아자동차의 전신인 아시아자동차와 영산강 유역개발 하부구조 건설이 좌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당시 자동차 관련 시장 여건으로 보아 완성차의 조립 생산은 어려웠다. 그러나 문제는 1960년대 초반부터 경부(京釜)를 축으로 이뤄진 경제개발은 효율성이 따른 측면이 강하지만 호남은 지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소외의식이 지역감정의 근간이 되고, 김대중의 대통령 출마를 계기로 정치의식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양기(1971~1980년)는 경제적 소외의식이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과 얹혀면서 정치의식으로 심화된 시기다. 김대중 낙천당 사건이 이런 의식의 심화를 가져왔다.

정치적 표출기(1980 ~)는 호남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경제적 소외의식 차원을 넘어 제반 사회적 모순을 야기하는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시기다.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의 봄이 좌절되고, 김대중이 구속되는 사건이 호남 지역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면서 정치의식으로 심화된 것이다.

요즈음의 호남 민심은 정치적 표출기의 연장선으로 지역의식과 감정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식이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불표로 이어졌다. 그런데 영남지역도 동향 출신 후보에게 불표를 던진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해석이 다르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현재 정치적 주류인 영남의 투표 행위에는 별다른 시비가 없는 반면 비주류인 호남의 투표 행위는 기이하게 여기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어쨌든 호남이 현재 소수라는 사실은 분명하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다수와 소수 간에 차별이 존재하면 다수와 소수가 모두 손해를 보지만 소수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더구나 소수가 다수를 보복하면 소수의 손해가 더 커진다는 것이 경제이론이다.

자유 사회에서 소수가 힘을 얻는 방법은 다수를 설득함으로써 스스로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는 길밖에 없다. 폭력, 불복종, 혁명은 대안이 아니다. 호남이 경제적 소외와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박 지사의 발언을 고립에서 벗어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아울러 호남인이 좀 더 가슴을 열고 멀리 보며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社說

디자인산업 발판 마련한 국제총회 유치

광주시가 2015 국제디자인연맹(IDA)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IDA는 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총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광주시와 문화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IDA 총회에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4000여 명의 디자인너들이 참가해 작품 전시, 학술대회,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게 된다. 2015년 10월 빛고을 광주시에 세계 디자인계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IDA는 국제디자인계 3대 단체인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국제그래피디자인협의회, 세계실내건축가연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디자인 연합단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IDA 총회는 세계 디자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3대 단체가 모여 교류하면서 디자인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는 광주시가 총회 개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 2015년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부분 개관되고,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가 함께 열려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자산과 디자인을 융합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디자인산업은 연구·개발 사업에 비해 매출 증대 효과가 3배나 되고, 자동차나 반도체에 비해서도 부가 가치가 2배 이상 크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디자인도시로서 확고한 발판 구축과 함께 디자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 연구·개발 지원,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속박·교통대책과 회의장 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유증 큰 광주 고교배정 이대론 안된다

광주시교육청이 새 일개 고교배정 방식을 적용하면서 지난해 거의 없었던 강제배정 학생이 700명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 학생·학부모·학교의 불만이 높다. 새 방식에 대한 문제를 우려한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사립고 선호도를 없앤다며 중학 내신에 따른 균등배정방식을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평준화지역 고교 신입생 학급까지 1만6천618명의 추첨배정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 중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으나 지역정보시스템(GIS)에 의해 배정된 학생, 속칭 강제배정 학생이 687명, 4.1%나 발생하면서 후유증만 남긴 셈이다.

선지원·후지원에서 희망학교를 모두 7곳이나 쓰는 까닭에 최소한 1곳에 걸려 지난해까지 강제배정 학생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하면서 무려 687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학교 7곳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고교배정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와 함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립희생' 명분에 밀려 사립까지 함께 죽어 광주교육이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로'(문화재 제 488호)다.

2008년 한국 영상자료원이 발굴한 이 작품은 지난해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됐다. '민주'의 김태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역사의 해설과 연주,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공연으로 재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광주에서도 '변사'를 만날 수 있다. 오는 5~7일 전남대 정문 씨디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통해서다. '검사와 여선생'(1948년 작)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여인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이다.

변사(辯士)는 변사로 통하는 신출 선생은 '검사와 여선생', '며느리 설움' 등 100여편이 넘는 무성영화에서 변사로 출연,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사는 광주 대표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출연한다. 그는 여선생, 검사, 탈옥수, 동네 사람 등 10여명의 등장인물과 해설자 역할을 맡는다.

'목소리 마술사' 변사를 통해 어른들은 옛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들은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 반갑다.

제작된 안중화 감독의 '청춘의 삶자

로'(문화재 제 488호)다.

2008년 한국 영상자료원이 발굴한 이 작품은 지난해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됐다. '민주'의 김태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역사의 해설과 연주,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공연으로 재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광주에서도 '변사'를 만날 수 있다. 오

는 5~7일 전남대 정문 씨디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통해서다. '검사와 여선생'(1948년 작)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여인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이다.

변사(辯士)는 변사로 통하는 신출 선생은 '검사와 여선생', '며느리 설움' 등 100여편이 넘는 무성영화에서 변사로 출연,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사는 광주 대표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출연한다. 그는 여선생, 검사, 탈옥수, 동네 사람 등 10여명의 등장인물과 해설자 역할을 맡는다.

'목소리 마술사' 변사를 통해 어른들은 옛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들은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 반갑다.

제작된 안중화 감독의 '청춘의 삶자

로'(문화재 제 488호)다.

2008년 한국 영상자료원이 발굴한 이 작품은 지난해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됐다. '민주'의 김태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역사의 해설과 연주,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공연으로 재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광주에서도 '변사'를 만날 수 있다. 오

는 5~7일 전남대 정문 씨디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통해서다. '검사와 여선생'(1948년 작)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여인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이다.

변사(辯士)는 변사로 통하는 신출 선생은 '검사와 여선생', '며느리 설움' 등 100여편이 넘는 무성영화에서 변사로 출연,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사는 광주 대표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출연한다. 그는 여선생, 검사, 탈옥수, 동네 사람 등 10여명의 등장인물과 해설자 역할을 맡는다.

'목소리 마술사' 변사를 통해 어른들은 옛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들은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 반갑다.

제작된 안중화 감독의 '청춘의 삶자

로'(문화재 제 488호)다.

2008년 한국 영상자료원이 발굴한 이 작품은 지난해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됐다. '민주'의 김태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역사의 해설과 연주,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공연으로 재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광주에서도 '변사'를 만날 수 있다. 오

는 5~7일 전남대 정문 씨디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통해서다. '검사와 여선생'(1948년 작)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여인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이다.

변사(辯士)는 변사로 통하는 신출 선생은 '검사와 여선생', '며느리 설움' 등 100여편이 넘는 무성영화에서 변사로 출연,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사는 광주 대표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출연한다. 그는 여선생, 검사, 탈옥수, 동네 사람 등 10여명의 등장인물과 해설자 역할을 맡는다.

'목소리 마술사' 변사를 통해 어른들은 옛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들은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 반갑다.

제작된 안중화 감독의 '청춘의 삶자

로'(문화재 제 488호)다.

2008년 한국 영상자료원이 발굴한 이 작품은 지난해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됐다. '민주'의 김태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역사의 해설과 연주,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공연으로 재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광주에서도 '변사'를 만날 수 있다. 오

는 5~7일 전남대 정문 씨디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통해서다. '검사와 여선생'(1948년 작)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여인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이다.

변사(辯士)는 변사로 통하는 신출 선생은 '검사와 여선생', '며느리 설움' 등 100여편이 넘는 무성영화에서 변사로 출연,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사는 광주 대표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출연한다. 그는 여선생, 검사, 탈옥수, 동네 사람 등 10여명의 등장인물과 해설자 역할을 맡는다.

'목소리 마술사' 변사를 통해 어른들은 옛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들은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 반갑다.

제작된 안중화 감독의 '청춘의 삶자

로'(문화재 제 488호)다.

2008년 한국 영상자료원이 발굴한 이 작품은 지난해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됐다. '민주'의 김태웅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역사의 해설과 연주,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공연으로 재조명돼 관심을 모았다.

광주에서도 '변사'를 만날 수 있다. 오

는 5~7일 전남대 정문 씨디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을 통해서다. '검사와 여선생'(1948년 작)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여인이 초등학교 선생이 된 것이다.

변사(辯士)는 변사로 통하는 신출 선생은 '검사와 여선생', '며느리 설움' 등 100여편이 넘는 무성영화에서 변사로 출연, 인기를 끌고 있다.

변사는 광주 대표 연극배우 윤희철씨가 출연한다. 그는 여선생, 검사, 탈옥수, 동네 사람 등 10여명의 등장인물과 해설자 역할을 맡는다.